

문화와 언어: 인문교육의 지평

백도형*

【요약】

순수 기초 학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대학 본래의 교육취지는 후속 전문 학술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문학 분야 전공자들은 자신의 공부와 졸업 후의 진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없고 이 점이 인문학 위기담론의 주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글쓰기 교육을 원용한 인문교육 모형이 현대사회의 교육 수요와 양립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실용적' 교육이며 학문연구라는 대학의 본래 정체성에도 부합할 수 있음을 논한다.

우선 전통적인 지식관은 객관적 세계가 인식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적 상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실재론의 전제를 탈피할 경우, 인식 대상인 세계는 '언어적 전환'을 겪은 세계, 즉 문화이다.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문화 자체가 언어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별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는 일종의 텍스트이며, 글쓰기 교육을 원용한 인문교육 모형이 문화 구성과 창의적 디자인 교육의 좋은 모형이 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은 또 다른 이유로 이 글의 주장을 강화한다. 지식의 빠른 변화는 종래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보다 지식의 통합과 재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교육을 원용한 인문교육 모형은 객관적 세계를 반영하는 지식이 아니라 세계와 문화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지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식기반사회와 구성주의의 새로운 흐름에 적합한 교육모형이 될 수 있으며,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본래의 정체성과도 잘 어울린다.

【주제어】 문화, 언어적 전환, 실재론, 구성주의, 글쓰기 교육, 문화디자인

* 숭실대학교 철학과

I. 머리말

새 천 년 이후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말로 흔히 거론하는 것이 ‘정보화사회’, 혹은 ‘지식기반사회’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지칭되는 사회의 빠른 변화는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지식의 수요도 “최첨단의 실용적 지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초 학문,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긴 호흡의 탐구를 필요로 하며 고전 연구를 포기할 수 없는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인문학 공부는 비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부추기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다. 순수 기초 학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대학 본래의 교육취지는 후속 전문 학술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 학자의 길을 걷게 될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문학 분야의 전공 공부를 졸업 후의 진로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인문학의 위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물을 수 있다. 소위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의 흐름을 시대의 추이로 받아들이면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인가? 과연 인문학으로서의 철학 교육의 정체성과 현 사회의 ‘실용성’ 요구는 양립불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인문학으로서의 철학 교육의 정체성과 현 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양립시킬 수 있음을 논하려고 한다. 그러한 양립가능성에 주목하는 근거는, ‘지식기반사회’가 지식 자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지식의 통합과 재구성 등 지식의 활용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교육시킬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기반사회는 완성되고 확정된 내용을 주입식으로 학습시키는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지식의 변환에 발맞출 수 있는 지식의 재구성, 재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사고력 배양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게다가 그러한 이 글의 결론은 문학, 어학, 역사학, 예술 등 철학 이외의 인문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인문학 이외의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학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도 성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환경 뿐만 아니라 마치 상식으로 보이는 낡은 세계관과 언어관을 극복하는 것도 이러한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지식기반사회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다음 장인 II장에서는 친숙하지만 잘못된 기존의 세계관부터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낡은 세계관이 극복된 모습을 언어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려 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글쓰기 교육에 관해서 살펴보고, V장에서는 이러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론으로서 구성주의 교육학을 제시한다. VI장에서는 이러한 글쓰기 교육이 단지 글쓰기 기법에 관한 교육일 뿐 아니라, 이미 살펴본 세계관의 변환과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문화의 창조적 구성과 디자인 능력 함양에 필요한 인문교육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¹⁾

II. 대상의 수동적 반영

여기서 제시하려는 전통 세계관은 지금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재론(realism)의 입장이다.²⁾ 즉 이러한 세계관에서 인식이란 객관적 세계 내지 사실에 대한 인식 주관의 수동적 인식과 반영이다. 이러한 입장에는 주관-객관의 배타적인 이분법적 사유가 전제되어 있으며, 주관과 객관 사이에 매체로서의 언어의 역할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재론의 입장은 힐러리 퍼트남(Hilary Putnam)이

1) 이 글은 필자가 숭실대학교 철학과 학과장으로서 2007-2008 학과 발전계획안 초안을 작성할 때의 아이디어와 고민을 기초로 하여 쓰여졌다. 또한 이 글의 일부 아이디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인문 교육: 철학 교육의 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08년 12월 17일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주최 학술포럼 [지식의 변환]에서 발표하였다. 그 때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인제대학교 인문학부 이찬훈 교수님과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 주셔서 이 글의 보완에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인간·환경·미래』의 익명의 심사위원님들도 유익한 지적을 주셔서 초고를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린다.

2) 교육학계에서는 이러한 실재론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부른다. 이 글 V장 참조.

다음의 세 가지 논제로 잘 요약하고 있다.

- 첫째, 세계는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대상들의 확정된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 둘째, 세계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서술은 오직 하나 뿐이다.
- 셋째, 진리는 단어나 사유기호와 외부의 대상 간에 성립하는 일종의 대응관계이다.³⁾

즉 첫째 논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 세계는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확정되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둘째 논제에서처럼 그러한 객관적 세계에 대한 참인 진술은 하나 뿐(ONE TRUE THEORY)이다. 객관적인 세계가 확정된 하나로 존재하므로 그것에 대한 참인 인식도 하나뿐이어야 함은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셋째 논제에서와 같이 이렇듯 하나 뿐인 객관적 세계에 대한 하나 뿐인 진리는 인식과 세계 간에 성립하는 대응관계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관을 ‘진리 대응설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재론과 대응설은 비록 매우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소박한 입장이다. 주체의 올바른 인식이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적 세계(또는 사실)와의 대응에 의해 성립한다면, 그 때 객관적 세계와의 대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의 그림에서 보듯 좌측의 주체의 인식은 판단 또는 명제 등으로 이루어진 관념적 존재인 반면에, 우측의 대상인 객관 세계, 사실은 구체적 존재, 사실이다. 서로 이질적인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일치하고 대응될 수 있을까?

3) Putnam(1981), p. 49.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대응 내지 일치 여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대응된다는 각각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나의 판단(혹은 명제)에 대한 인식과 객관 세계(또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서 그 두 인식 간의 비교를 통해 대응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주체의 인식과 인식 대상인 객관 세계와의 대응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선행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애초에는 주체의 인식(인식1)과 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 세계와의 대응을 진리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대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체의 인식(좌향)과 객관적 세계(우향)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인식2)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주체의 인식(인식1)과 존재 세계와의 대응, 즉 좌향과 우향 간의 대응 아닌 좌향(인식1)에 대한 또 다른 인식과 우향에 대한 또 다른 인식 간의 대응(즉 좌우향 각각에 대한 인식2 간의 대응)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의 ‘객관성’은 지나치게 소박한 이념이 된다. 왜냐하면 인식 주체에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보였던 객관 세계도 판단 내지 명제의 참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 생각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소박한 이념이 서양 근세 이후 형성된 주관-객관 개념의 배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글에서 그러한 개념의 기원을 데카르트의 배타적인 이분법적 심신관에서 찾아보았다.⁴⁾ 즉 그의 제 1 원리에서의 생각하는 자아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석판명한 확실성의 토대이기 위해서 어떠한 물리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사유, 순수 영혼이었고, 또 연장(延長, extension)을 그 본성으로 보는 물체는 중세의 자연관과 구별되는 그의 기계론적 자연관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심리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수 물질이었다.⁵⁾ 이러한 그의 배타적인 심신관은 그가 초석을 놓은 근세 이후의 서양철학에서 주관-객관, 그리고 존재-인식/언어 개념 간에 내재해 있는 상호배타성의 근원이 된다.⁶⁾ 그리고

4) “정신과 물체의 본성은 그저 서로 상이(versae)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서로 대립(contrariae)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데카르트, 『성찰』에서 「여섯 성찰의 요약」, 데카르트(1997), p. 29 참조) 데카르트의 이러한 심신관이 근세 이후 배타적인 주관-객관 개념으로 형성된다는 보다 상세한 설명은 백도형(2009) 참조.

5) 서양근대철학회(2001), pp. 103 이하 참조.

앞에서 살펴 본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의 소박한 객관성 이념도 이러한 데카르트 이래의 상호배타적인 주관-객관 개념이라는 통념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진리대응설 또한 이러한 객관성 이념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소박한 실재론과 진리대응설 또한 재검토해야 한다.⁷⁾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실재론의 상식성을 재고한다는 생각에 우려를 표할 지도 모른다. 객관-주관, 존재-인식 간의 배타적인 구별을 문제삼다 보면,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esse est percipi)”이라는 버클리 식의 관념론(idealism)에 빠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예컨대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의 책걸상 등 여러 물품들은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즉 아무런 인식 주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물품들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닐까? 이러한 당연한 것을 감히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S는 존재한다.>라는 존재주장에 대해 위의 의문은 “존재한다”라는 동사 부분을 당연시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소박한 객관성을 문제삼는 생각은 실재론자들이 당연시하는 “존재한다”라는 동사 부분을 의심한다기보다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S”를 재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하필 여기서 “S”를 주어로 놓을까? 그것을 주어로 놓는 것이 유일하게 참인 객관적인 것인가? 예컨대 S의 부분이나 S가 부분이 되는 더 큰 존재자를 지칭하는 것을 주어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어에 의해 지칭되는 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처럼 전혀 엉뚱한 맥락에서 다른 식으로 주어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존재한다.>에서 실재론자들이 옹호하려는 객관성은 “존재한다”라는 동사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S”라는 주어까지 객관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절한 배경지식, 배경이론이나 맥락 등에 의존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6)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백도형(2009), 3장 이후를 참조.

7) 나는 실재론과 진리대응설 뿐만 아니라 심신 문제도 데카르트 이래의 이러한 통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백도형(2009) 참조.

백락이나 배경지식이 작용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S”는 특정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특정하게 개념화된 것이다.⁸⁾ 개념화가 제기됨으로써 주관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라는 주관-객관 이분법 구도만 문제 삼던 인식의 영역에 인식 매체로서의 언어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

최근까지도 언어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본 대로 실재론에서는 객관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대응에 있어 주관-객관만이 문제될 뿐, 언어의 역할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실재론의 입장에서 인식이란 객관적 대상에 대한 수동적 인식과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 인식은 대상을 거울같이 모사한다는(copy) 이런 입장을 취할 때, 언어는 주목받을만한 어떠한 특별한 역할도 하지 않는, 즉 있어도 또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서양철학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러한 언어관은 의외로 뿌리깊고 오래 지속되어 왔다. 서양철학의 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이러한 언어관의 공통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라톤주의나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운동과 변화보다는 본질, 동일성(또는 정체성, identity)⁹⁾ 등이 존재자의 더 중요한 본성이었다. 또한 두 사상 모두 불멸성이 주된 관심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불멸하고 영속적인 존재자 역시 문자를 통해 서술될 수 없는 것이라는 식의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¹⁰⁾ 동양의 선불교나 노장철학처럼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나 의심이 별로 없었다. 서양의 형이상학은 동일성(또는 정체성), 본질, 본성 등을 추구했지만 본질 등의 담지자에 대해서 문자나 언어를 통해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¹¹⁾

8)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관찰이 이론의존적(theory-laden)>이라는 주장과 관계가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관찰이 의존하는 ‘이론’이 바로 배경지식이다. 개념화 과정에서 개입하는 언어 또는 개념틀(conceptual scheme)이 가장 대표적인 배경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백도형(2000), 2-3장 참조.

9) ‘identity’의 우리 말 번역으로 보통은 ‘동일성’으로 쓰이지만, ‘- 외의 동일성’ 식으로 관계적인 경우(상호 동일) 이외에,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정체성’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

10) 강상진은 인간이 불멸을 갈망하지만 신들처럼 불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체를 넘어서는 기억을 요구하는데 기억은 세대를 통해 지속되는 문자를 통한 소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문자의 형태로 전송된 고전 문헌들은 불멸을 향한 현신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강상진(2007), p. 66.

그러다보니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언어에 의한 인식은 대체로 존재 자체와 밀착해 있는 투명한 인식으로 여겨졌고, 인식 자체에 대한 다른 의심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한 의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서양철학에서 상식적인 진리관으로 여겨졌던 진리대응설도 대체로 주관과 객관 간의 대응이었고, 매체로서의 언어에 주목한 것은 대체로 20세기 이후의 일이었다.¹²⁾

그런 전통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서인지, 서양철학에는 언어를 분석하고 탐구하면서도 존재론을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¹³⁾ 그래도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 이르기까지 초기 분석철학자들은 소박한 전통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그 당시까지 별로 의심받지 않았던 언어와 세계와의 동형성(isomorphism)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언어분석, 논리분석을 통해 형이상학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그나마 단순히 주관이 아닌 언어를 관심에 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언어와 세계와의 동형성에 대한 분석철학계의 비판은 잘 알려진대로 논리실증주의 이후의 철학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이르러서야 모습을 보인다.

이제 주관-객관의 배타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지양되면서, 인식 매체로서의 언어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주관-객관의 양자 사이에 개입하게 되는 언어에 관해 살펴 보겠다.

-
- 11) 물론 플라톤의 경우 형상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과는 구별하였지만, 형상도 언어를 통해 서술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이 최근 데이비드 암스트롱(David M. Armstrong)에 의해 플라톤주의가 자신의 경험적 실재론(immanent realism)과는 달리 술어라는 언어 범주와 보편자라는 존재 범주를 선형적으로(a priori) 일치시키는 초형적 실재론(transcendent realism)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Armstrong(1978), 7장 참조.
 - 12) 베이컨의 '시장의 우상', 실체에 관한 흄의 비판, 칸트가 물자체를 현상의 영역 밖에 놓은 것 정도가 근세까지의 서양철학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언어비판인 듯하다.
 - 13) 나는 최근 심리철학의 문제들 중 흔히 형이상학의 문제로 분류되는 심신 문제, 정신 인과의 문제 등이 오랜 탐구 역사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존재 차원인 속성을 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언어 차원인 술어 탐구에만 그치고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백도형(2004), 그리고 백도형(1995) 참조.

III. 문화의 능동적 구성

실재론이라는 상식적인 전통 세계관이 극복되면서, 이제 인식 매체로서의 언어는 단순히 인식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된다. 수동적 반영이라는 전통 인식 모형에서는 인식의 대상은 주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 자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객관적 존재 자체가 아닌 개념화에 의한 존재자임이 드러났다. 이제 현대의 새로운 존재 탐구는 객관적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이 이루어진 탐구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화에 의한 존재자는 바로 문화(文化)가 된다.

‘문화’의 영어표현인 ‘culture’가 ‘경작하다’, ‘재배하다’를 의미하는 ‘cultivate’라는 동사와 어원상 관련있음은 많이 알려져 있다. 마치 구석기 채집경제 시절 사냥하고 열매를 따 먹는 등 자연 그대로를 섭취하다가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 자연을 양식·가공하여 섭취하는 원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듯 스스로(自) 그런(然) 것이고 본성(nature)대로 있는 ‘자연’(自然, nature)과는 대조적으로, ‘문화’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즉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연에 부가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적, 외적 생활양식의 총체를 말한다. 문화가 이렇게 자연과 대조되면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인문사회과학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에도 언급된다.¹⁴⁾

이렇게 ‘문화’ 개념을 자연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일단 규정해 놓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다양하고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어서 문화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적실한 연구와 개념 규정의 방법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인문학계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문화를 규정하곤 하는데, 즉 문화는 언어와 중요한 속성들을 공유한다는 것이다.¹⁵⁾ 앞의 II장에서 본 실재론의 언어관이 세계와 언어의 동형성이라면, 이제

14) 리케르트(2004) 참조.

언어적 전환 이후에는 문화와 언어의 동형성으로 전환된다. 물론 실재론에서의 언어와 세계와의 동형성에서의 ‘세계’는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확정되어 있는 세계였지만, 문화는 그 구성에 따라 다원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언어는 분명히 문화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이지만, 다른 요소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것은 문화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언어와 유사성을 띠며, 언어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화는 우선 인간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창조되고 생겨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인간의 사유능력과 지향 능력에 의해 배태된 것으로 자연 자체와는 달리 의미형성체이다. 그러다보니 문화는 인간의 사유와 지향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 지향성(intentionality, 또는 aboutness), 유의미성 등을 함께 갖는다. 또한 문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맥락(context)에 의존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이때의 ‘맥락’으로는 역사적인 종적 맥락, 그리고 동 시대의 다른 문화 요소들을 포함한 문화 체계 전체와 논리적, 서사적, 이론적으로 연결되는 횡적인 맥락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의미는 마치 언어의 의미가 그렇듯이 대체로 관행적으로 정해지며, 이러한 관행은 개인적, 사적으로 입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점도 문화가 언어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점이다.

또한 자연과는 달리 인간에 의해 자연에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문화는 자연적인 본능처럼 유전에 의해 생물학적 선조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교육, 학습을 통해 항상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습득의 주요 전달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문화 학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화가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화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인식 대상인 객관적 세계의 언어적 전환은 새로운 인식 대상으로 문화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언어적 전환은 곧 문화적 전환이며 이후 모든 존재자는 문화존재자가 되는 셈이다.¹⁵⁾

-
- 15)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등 구조주의와 거기서 영향을 받은 기호학 등이 이러한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이전에 해석학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캣시러도 전형적인 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
- 16) 나는 예전의 글에서 전통적인 ‘존재’ 개념으로는 최소 존재론을 유지하면서 문화존재론의 바탕이 될 수 있는 4차원 개별자론(Four-Dimensional Particularism)을 제시하였다. 백도형(2009), 그리고

IV. 세계와 문화를 빚어내는 글쓰기

문화와 언어 간의 이러한 동형성을 인정한다면, 문화를 탐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문화의 이러한 언어적인 성격을 직시하고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듯이 각 문화 요소와 문화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각 문화 요소의 의미는 마치 언어의 의미가 그러하듯 모종의 언어적인 서사 구조와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구조 등으로 나름의 맥락을 형성하면서 의미화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구조적 특성을 인지하면서 탐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문화는 그 자체로 일종의 텍스트이며, 이러한 문화 이해와 문화 창조를 위해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교육이 문화 연구의 적절한 모형이 될 수 있다.¹⁷⁾ 문화의 체계와 흐름을 읽기 위한 교육은 텍스트의 분석적·비판적 읽기 교육에서 원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한 교육은 문화 창조와 문화디자인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빚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글쓰기 교육은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대학입시나 전문대학원 입시, 대기업 입사시험 등에서 논술시험 실시가 확대되고 있고 자기 개성표현과 의사소통이 사회의 주된 키워드로 부각함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고 설득력있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시되는 추세에서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관심의 증대는 글쓰기 교육이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징으로 흔히 거론되는 지식기반사회 내지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창의력과 사고력 교육방식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정보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둘째,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지식·정보는 이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 셋째, 하지만

백도형(2005) 참조.

17) 여기서의 ‘텍스트’는 넓은 의미에서 쓰인 것으로, 텔레비전, 영화 등 영상 매체나 다른 종류의 매체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식·정보의 수명은 단축되었다.

과거의 지식은 그 양과 내용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의 교육은 정해진 지식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지식 양상이 과거와 같다면 이런 암기식 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지식 변화가 극심한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암기식 교육이 아닌,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고력 배양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와 증가가 극심하므로 암기식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평가방식에서도 지식의 내용을 측정함으로써 암기식 교육을 유발시키는 객관식, 단답형 등의 정답제시형 시험형식 대신에 주어진 지식을 활용, 재구성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논술 방식의 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 대학에서도 글쓰기 교육이 새로운 교양과목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글쓰기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식의 재구성, 재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사고력 배양 교육을 위해서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확대되는 글쓰기 교육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글쓰기 교육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문화가 전반적으로 언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창출, 서사와 논리의 체계 구성이 새로운 문화의 구성과 창의적 디자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글쓰기 교육이 인간과 인문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객관적 사실 자체의 실재론이 지양된다면, 사실·가치의 이분법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순수하게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언어와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언어 간의 구별이 생각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대체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가치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가 언어적이라는 이 글의 주장은 글쓰기 교육이 문화의 구성과 디자인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 교육에 좋은 모형이 됨을 보여주며, 설사 글쓰기 교육이 실용적이고 도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글쓰기 교육이 인문적 가치관에 관한 교육(소위 ‘인성교

육'도 포함하는)과 별개가 아님을 함축한다고 생각한다.¹⁸⁾

V. 글쓰기 교육과 구성주의

II-III장에서 살펴 본 세계관과 인식론, 언어관 등의 변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 본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적절한 교육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교육학계에서도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한다.¹⁹⁾ 구성주의가 극복하려는 전통 입장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부르는데, II장에서 살펴 본 실재론을 바탕에 둔 교육 이론을 교육학계에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객관주의 교육학의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그 진리는 규명될 수 있고 증명이 가능하며,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식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가 인식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객관주의 입장에서 학습은 외부에 있는 실재의 진리를 학습자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반면에 구성주의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내는 학습방법을 지향한다. 구성주의는 외적 진리와 고정된 지식을 부정하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인지 활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습은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 되며 수업도 지시나 전달보다는 이해와 협의, 상호활동 중심이 된다.²⁰⁾ 학습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18) 사실을 서술하는 언어가 가치관에 이미 의존해 있다는 생각에 관해서는 Putnam(1981), 6장, 또 코피(1988) 2장 참조.

19) 구성주의 교육학에 대한 소개서로는 강인애(1997) 등이 있고, 구성주의를 글쓰기 교육에 접목시킨 책으로는 정희모(2006) 등이 있다.

20) 구성주의가 학습자중심 교육이념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민주화, 탈권위주의화의 흐름에서 제기되는 '열린 교육'의 이념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주의의 보다 중요한 배경은 II-III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철학적 세계관의 변화와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라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²¹⁾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많이 거론하는 ‘자기주도학습’, ‘협력(모둠)학습’ 개념도 구성주의를 기초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가 고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지식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현대 이전의 시대처럼 지식의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암기식 학습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식의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고정화하여 암기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무의미 할 수도 있다. III장에서 제시했듯이 이제 우리 지식의 대상은 우리 인식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형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구성되고 의미형성되는 문화이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교육은 결국 문화를 창조적으로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교육하는 것이다.

대학의 기능으로 흔히 교육과 연구를 든다. 대학 교육이 그 이전 단계 교육인 초등·중등 교육과 다른 점은 연구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는 점이다. 지금은 예전보다 유명무실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졸업 요건으로 졸업논문 제도가 존재하는 의미도 그런 뜻이리라. 경제 용어를 사용해서 연구를 ‘학문의 생산’으로 교육은 ‘학문의 소비’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문 생산의 대표 활동은 저술 활동이고, 학문 소비는 주어진 저술, 텍스트를 읽고 학습하는 것이라고 단순화시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이런 식의 단순화가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적절한 구별이고 비교인지는 잘 모르겠다. 대학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학에서도 그 이전의 중등교육단계와는 달리 주어진 기존의 이론이나 텍스트를 ‘교육’하는 것(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능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도 대학교육 기능의 주된 요소이니,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소비’와 ‘생산’이라는 식의 비유를 잦대로 해서 선명하게 구별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 현실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특히 중등·초등 교육에서의 교육은) ‘소비’라는 위와 같은 단순한 비유대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우리

2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에 관한 이 문단의 설명은 정희모(2006), pp. 50-1에서 참조.

교육계에서도 대학 교육이 이제는 ‘대중교육’의 한 단계가 되었다는 말을 흔히 하곤 하는데, 대학생 인구와 대졸자 인구 비율이 예전보다 상당히 증대하였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예전의 대학보다 교육과 연구 기능을 ‘생산과 소비’에 유사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과 교육내용 수준 이외에 교육방식의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크게 차별할 수 없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구성주의를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대학의 원래 목적은 직업교육이 아니라 학문연구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에서의 교육은 단지 기존 이론을 학습한다는 ‘소비’의 측면이 아니라 학문 연구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니 만큼 ‘학문 생산’을 위한 연구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학문의 소비’만을 하는 교육이 아니며 연구기능과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요즘의 대학 실용교육론자들은 이러한 대학이념이 과거의 낡은 대학관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것이다. 대학이 ‘대중교육기관’이 된 만큼 이러한 대학관은 이제는 대학원 이상의 상급 연구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대학원조차도 상급 직업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임이 분명하다. 물론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낡은 이념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며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성주의를 언급하면서 이런 ‘낡은’ 대학관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쩌면 산업사회를 넘어서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가 됐다는 이 마당에 이러한 ‘낡은’ 대학이념이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부활시켜야 할 진정으로 ‘실용적인’ 대학이념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학문의 소비’라는 비유로 보았던 교육은 기존의 이론들 중에서 ‘정설’로 인정된 것들만을 배우는 교육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교육계의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처럼 인정된 교과서를 통한 학습이다. 그 때의 ‘교과서’는 비판적 읽기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바이블’의 지위를 누린다. 여기에서는 기존 정설에 대한 의문이나 새로운 이론의 탐구는 원칙상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학문의 생산’을 위한 교육,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때의 ‘텍스트북’은 ‘바이블’이 아니라 탐구의 시작을 열기 위해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주어진 자료일 뿐이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정설’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설들을

함께 다루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탐구한다. 학생은 교수의 연구작업에 동참하며 연구능력을 키운다.

만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로 변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식의 변화가 극심하다면, ‘학문의 생산’으로 비유된 연구능력의 교육이 (그래서 연구기능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교육이) 구성주의 이념에 적합하며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의미있는 교육이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어설플 ‘실용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대학의 진정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구성주의 교육학은 앞에서 제시한 글쓰기 교육 모형이 단지 글쓰기 기법을 교육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 시대에 맞는 유력한 인문교육의 모형으로 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²²⁾

VI. 문화디자인을 위한 인문교육

나는 이 장에서 글쓰기 교육 방식을 원용한 바람직한 인문교육 모형을 제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은 결코 새롭지 않다. 오히려 ‘낡은’ 대학이념으로 치부되던 전문 학술연구자 양성 교육, 연구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그 중에서도 인문교육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언어관,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이며, 이 시대에 진정으로 ‘실용적인’ 교육이념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인문교육모형을 제시하면 간단히 말해 세미나식 수업의 강화이다. 발표와 토론식 수업 형태를 강화하고 시험보다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주로 한 평가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지식의 고정된 내용을 측정하는

22) 이 장에서는 구성주의 교육학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글 전체는 구성주의 교육학에 대한 철학적 뒷받침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제시험 시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의 논문이나 보고서 쓰기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시험 위주의 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지식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는 자연스럽게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학생들 스스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팀기반 협력학습의 방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 가는 수업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²³⁾

이러한 수업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수업 게시판, 토론 게시판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학습에 머물지 않고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협력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팀워크를 통한 사회성과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평가 대상이 되는 논문은 가급적 주제 선정의 초기 작업부터 지도하고 연구윤리에 관해서도 지도함으로써 연구의 창의성을 복돋워야 한다.

담당 교수의 지도와 함께 토론 그룹을 함께 했던 학생들 상호 간의 비판적 논평과 토론을 장려한다. 예컨대 논문 초고를 작성한 후 교수가 평가하기 전에 동료 학생들끼리 상호 논평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논문을 출력본으로나 이메일로 교수가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 수업게시판, 토론게시판을 활용하여 담당교수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논문과 토론 내용, 기타 수업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논평,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²⁴⁾ 담당교수는 최종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준비와 작성 과정, 논평과 토론 과정도 평가하며 지도한다. 논문은 개인별 논문일 수도 있고 팀기반 협동을 바탕으로 작성한 팀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여 개인의 수업에의 기여와 팀별 기여를 각각 별도로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강의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팀기반 협력학습 형태의 수업일

23) 최근 교육학에서는 구성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약칭 PBL)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강인애(1997), 8장 참조.

24) 다만 수업구성원들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다.

경우, 과연 전공과목에 필요한 내용이 어떻게 원활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전공과목의 경우라면 담당교수의 강의를 통한 정보전달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가 적절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 텍스트를 먼저 학생들이 읽고 나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전공과목에 필요한 내용들도 텍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먼저 생각하고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걸려진 내용들에 대해 보충설명과 방향제시 정도로 충분할 수 있다. 교과목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나의 텍스트를 주어서 ‘교과서’로 삼게 하기 보다는 관점이나 입장이 다른 여러 텍스트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때까지 ‘바이블’ 식의 교과서에 익숙하던 학습방식을 극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비판적으로 읽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학과 내부에 학술 동아리를 양성하고 정기적인 학술제를 열어 학생들의 학술성과 발표를 장려한다. 학술동아리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서 선정된 팀에게 비용 등의 연구지원을 하는 등, 팀 프로젝트 방식을 체험하게 할 수도 있다. 졸업논문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학술적 글쓰기와 합리적인 설득과 발표 토론 능력,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우수 졸업논문을 포상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제도를 만들어 좋은 졸업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연구소나 학과의 연구조교로 활용함으로써 장학금 혜택의 기회도 확대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학교의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나 논문 평가 시 기존 이론에 대한 요약과 정리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이론,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학문적 기여(contribution)”라는²⁵⁾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자 양성을

25) 후속 연구자에 의해 인용될 수 있을 정도를 지향할 수 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학계는 외국 이론을 수입해서 소개하는 것을 학문적 기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독창적인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은 단순한 소개나 정리 정도로 쓰여진 논문이라면 설사 그것을 후속 연구자가 읽고 참고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한 교육 방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을 병행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학교육의 정체성이 ‘학문 생산자’로 비유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면, 단순히 기존 이론을 학습하는 것보다 자신의 해결책과 대안을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한다.

결국 이런 교육방식은 사실상 각 전공분야의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이란 결국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필요로 하므로, 학생들은 논문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관점을 구성해야 함을 깨달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전통적인 전문 학술연구자 양성 교육 방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론의 변화에 보다 적절하며 동시에 지식기반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력 양성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대상이 더 이상 인식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 자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며, 새로운 사회환경인 지식기반사회의 바람직한 교육이념이 완성되고 확정된 내용의 교육이 아닌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 재구성하며 문화를 창조적으로 구성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이다.²⁶⁾

26) 어떤 이는 인문학의 주된 작업이 고전 연구임을 들면서 이 글의 주장에 이견을 표할 지도 모르겠다. 즉 고전은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지식이므로 보기에 따라 암기식(예컨대 고전 암송) 주입식 교육방식이 상대적으로 유효한 영역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고전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되는 인문학은 이 글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환경을 위한 적절한 교육모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전 텍스트는 물론 글자 하나하나로는 확정되어 있겠지만, 그 고전을 그 때 그 때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일은 늘 열려 있으며 실제로 인문학의 주된 작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을 암송할 때조차도 다양한 암송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낳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고전은 현재의 학문 분류방식이 적용되기 이전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현대 학문에서 중요하게 요청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위한 적절한 텍스트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리고 II-III장에서 살펴 본 새로운 인식론은 백지상황에서 출발하는 인식이 아닌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이므로(주 8번 참조), 고전은 인식에 불가피한 토대가 되는 배경지식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렇듯 고전 연구도 이 글에서 제시하려는 새로운 인문교육 모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VII. 맺음말: 문화디자인의 새 지평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의 양과 내용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재론 내지 객관주의의 주장처럼 과거에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계나 사실이 인식주관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하고 고정된 대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교육은 유일하고 고정된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정해진 지식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지식 양상이 과거와 같다면 이런 암기식 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관이 달라지고 지식 변화도 극심한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암기식 교육이 아닌,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고력 배양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거론하며 “사회 진출 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대학에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실용성’에 대한 급진적인 요청이 ‘인문학 등 순수 학문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실용성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새로운 세계관에 결코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흐름에도 어긋날 수 있는 단견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전문화된 지식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화된 지식은 그 수명이 짧으며 늘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강조는 그러한 급속한 변화의 흐름을 뒤쫓아 가는 것에 급급한 수동적인 태도를 낳는 것에 그치기 쉽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자칫 대학 졸업생을 당장의 사회 요구에 따라 필요할 때 편리하게 데려다 쓰고 언제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급조된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도 있다.

정보화 사회 이후로 지식을 얻는 것은 이제 예전보다 쉬워졌다. 오히려 지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능력은 ‘최첨단’이지만 수명이 짧아 조만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는 능력이기보다는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이러한 지식들을 능동적으로 소화하여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의적으로 구성해내고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망하고 그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철학교육을 비롯한 인문교육은 창조적인 문화 구성과 문화디자인의 새 지평을 여는 교육모형으로서, 바로 이러한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건전하고 능동적인 사회 주체를 기르는 데에 기여한다.

■ 참고문헌

- 강상진, 「서양고중세의 인문정신과 인문학」, 『인문정신과 인문학: 지식의 지평 2』, 한국학술협회의 편, 아카넷, 2007.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1997.
- 데카르트,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 리케르트,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이상엽 역, 책세상, 2004.
- 백도형, 「환원, 속성, 실재론」, 『哲學』 제 43집, 한국철학회 1995.
- _____, 「‘과학의 시대’에 돌아보는 인문학의 역할」, 『승실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30호, 2000).
- _____, 「물리주의와 보편자」, 『철학적 분석』 10호, 한국분석철학회 2004.
- _____, 「4차원 개별자론」, 『철학연구』 68집, 철학연구회, 2005.
- _____, 「현상과 실재: 심신 문제에 대한 반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42집, 한국현상학회, 2009.
-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창작과비평사, 2001.
- 정희모,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2006.
- 코피, 『논리학 입문』, 민찬홍 역, 이론과실천, 1998.
- Armstrong, D., *Nominalism & Realism : Universals and Scientific Realism v.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Putnam, H.,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1981.

【ABSTRACT】

Since some believe that the aim of education in the field of humanities is to raise students to be professional scholars of liberal arts and the reality that most graduates from the college of humanities have been experiencing substantial difficulties to get a job directly connected to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ir college, many have kept thinking that these made worse the situations so called “the crisis of humanities”. In this article, however, I argue that a model of education in humanities, based on writing education is really a ‘practical education’, compatible with the educational demand of current society and it is relevant to a function of universities, that is, academic research.

First of all, a traditional world view is relied upon a commonsense of realism, according to which the objective world exists mind-independently of subjects. But once we rethink the necessity of being clung to that kind of realism, we can re-view the world as a ‘linguistically turned’ one, namely as a cultural being. Language is of course an element of culture, but a privileged one, because our culture in itself is linguistic. Culture is a sort of a text. And the writing education can enhance our creativity in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at culture.

And our portrait of current society as ‘Knowledge-Based Society’ also supports my point in another way. The situation of rapidly changing knowledge requires educators to foster educatee with an problem-solving ability, being capable of unifying and reconstructing this and that knowledges, and this kind of ability can be nurtured with a constructive education rather than with the cramming system of it.

【Key words】 culture, linguistic turn, realism, constructivism, writing education,
culture design

논문 투고일: 2010. 02. 20

심사 완료일: 2010. 04. 12

게재 확정일: 2010. 04. 15